

『내 친구 짐』 독후 활동지



키티 크라우더 글·그림 | 나선희 옮김
책빛 | 32쪽 | 6세~초등 저학년 | 모두를 위한 그림책 80

“

까만 티티새와 하얀 갈매기의 진실한 우정,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넘는 이야기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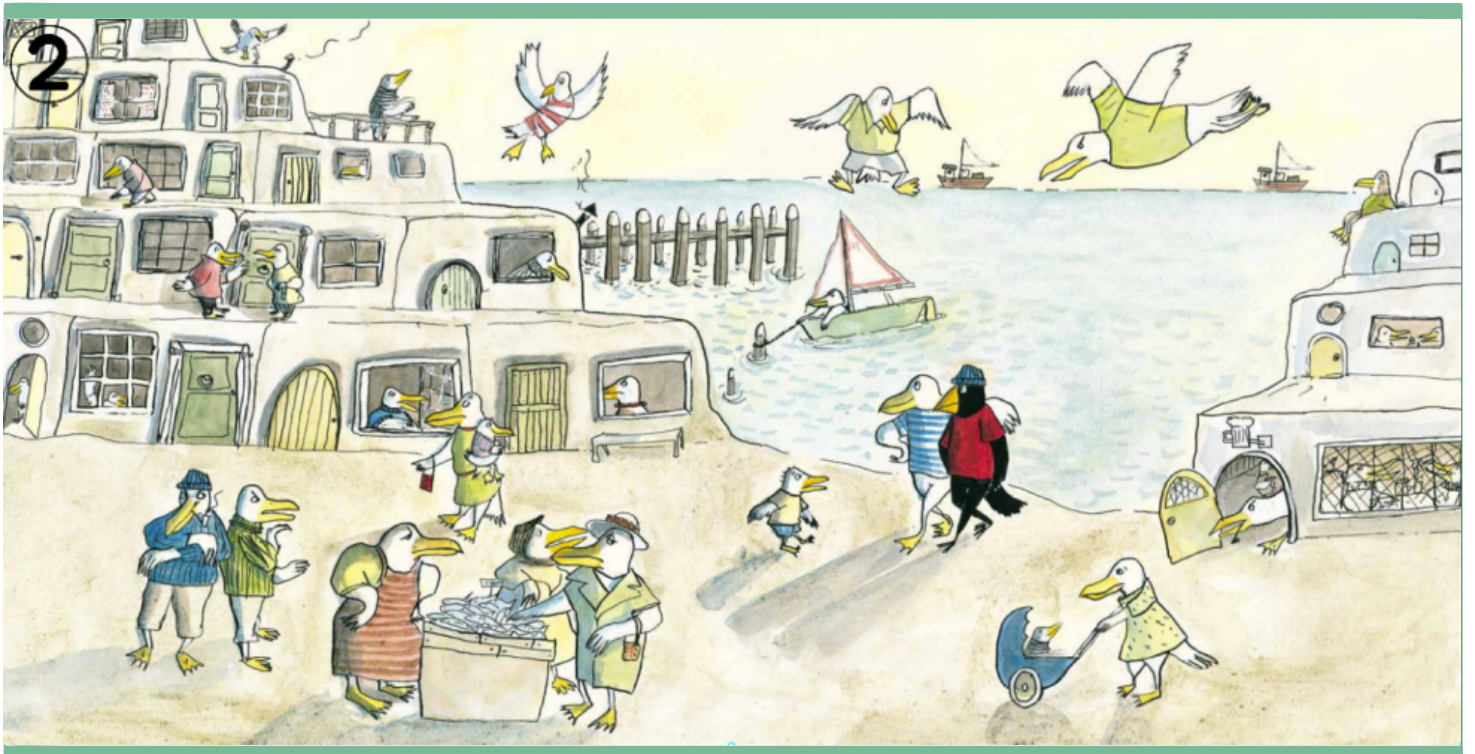
”

활동 1 다른 그림 찾기

까만 티티새 잭이 하얀 갈매기 집의 마을에 초대받아
모두 집과 똑같이 생긴 갈매기들뿐인 걸 보며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다른 그림 찾기 놀이를 하며 책과 친해져 보아요.

아래 그림 ①, ②를 보고 다른 그림 다섯 군데를 찾아 그림 ②에 표시해 보세요.



활동2 바다로 떠난 티티새

책을 읽고 아래의 질문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1. 숲에서 사는 티티새 잭은 어느 날 다른 세상을 보러 가기로 결심하고는 바다로 떠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곤 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시) 하나,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요.

2. 잭이 집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나요? 잭의 발을 발견하고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잭이 사는 곳에 사는 새들의 발에는 물갈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잭의 발이 짐의 발과 다르게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잭이 짐이 사는 바다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갈매기들로부터 차별을 겪었지요.
여러분도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활동3 진정한 우정이란

1. 이야기 속에서 잭과 짐은 깊은 우정을 나누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정'이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2.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친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서로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만, 혹은 친구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정이 아닌 '선의'라고 해요. '좋은 뜻'이란 의미이지요.

세 번째,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가진 마음도 알고 있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도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친구라 부르지는 않아요.

책 속에서 잭과 짐이 우정을 나누는 여러 장면 중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보고, 그 장면에서는 우정의 세 가지 마음 중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 장면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1. 잭은 짐에게 숲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어 기뻐했어요.



2. 잭과 짐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3.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면 돼."



4. 잭은 저녁마다 짐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었어요.



5. 잭과 짐은 오랫동안 함께 낚았어요.



6. 짐은 잭을 집에 초대했어요. 잭은 짐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예시>

내가 고른 장면: 위 보기에는 없지만, '잭이 웃었어요. 짐은 진정한 친구니까요.' 장면을 골랐어요.

이 장면에서 내가 찾은 우정의 마음: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잭은 짐의 첫 번째 마음이 느껴져서 웃은 거예요.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웃을 때에는 둘의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지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고른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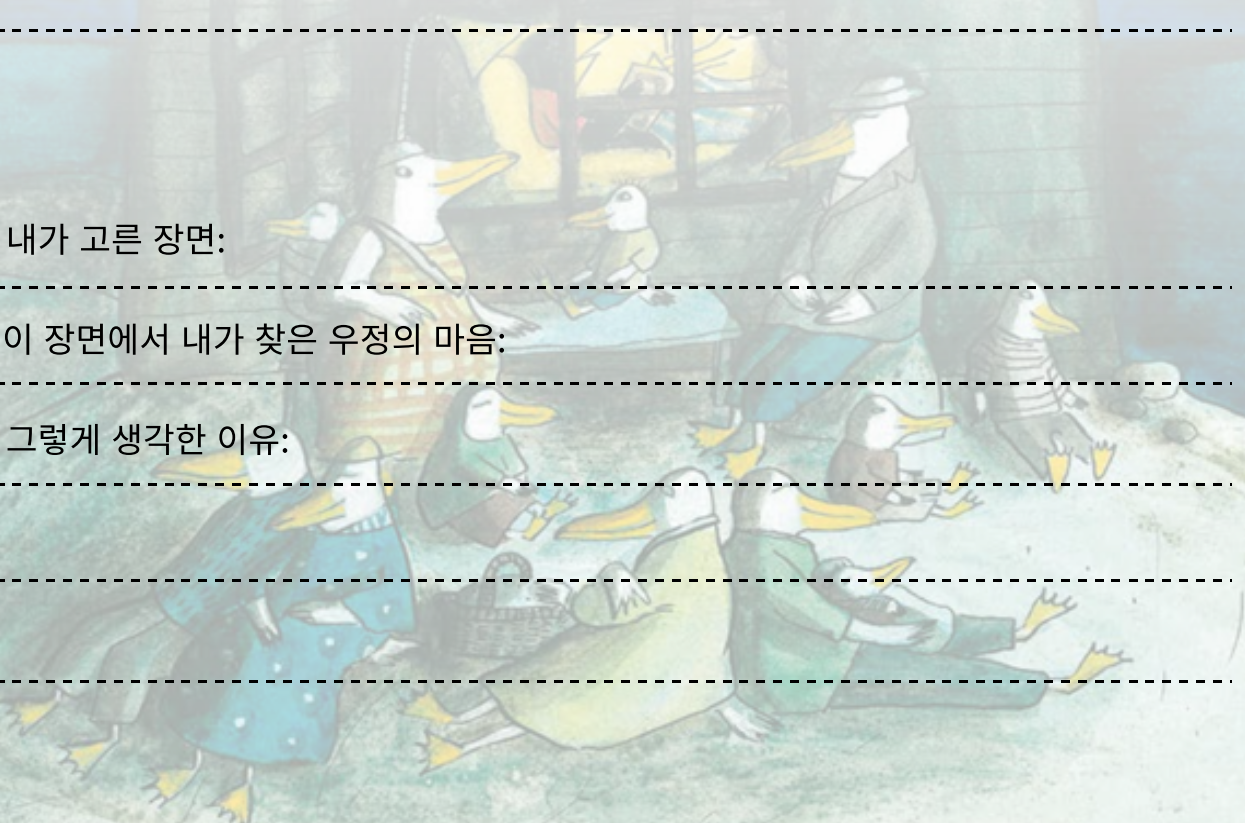
이 장면에서 내가 찾은 우정의 마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

내가 고른 장면:

이 장면에서 내가 찾은 우정의 마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



활동4 차별에 맞서는 마음

우리에게는 차별에 맞서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의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지요.
다음 질문에 답하며 차별에 맞서는 마음을 길러 봅시다.

1.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차별이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그들은 내 옆의 친구일 수도 있고, 책 속에, 뉴스 속에, 유튜브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2.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또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필요할까요?

3. 어느 날 잭은 짐의 집에서 책 상자를 발견한 잭은 저녁마다 책을 읽어 주어요. 결국 이야기의 힘은 낯선 이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지요.

이처럼 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편견에 맞서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활동5

이웃들의 일기

하얀 갈매기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까만 티티새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이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갈매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갈매기 이웃들의 입장이 되어 그때의 일기를 써 봅시다.

<책을 처음 본 날>

처음 보는 낯선 새를 봤어.

<잭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은 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편견이고 차별이었어.

<잭과 친구가 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잭에게 사과를 했어.

다른 그림 찾기 정답

